

한국 함평중학교 ‘역사 클럽’ 3학년 학생들로부터의 편지에 대하여

‘역사 클럽’ 소속인 3 명의 학생들이 시마네현의 중학교 지리 교사들에게 보내온 편지에는 ‘최근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며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서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 ‘일본정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가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여 가장 먼저 점령한 땅이 이 독도입니다’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근대이전에도 독도가 일본영토이었다고 억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그 근거로 ‘근대 이전의 많은 문서와 지도에서는 일본정부가 발간한 문서는 지도조차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선생님들은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일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본정부가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편지의 끝을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여 상호협력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라는 말로 맺고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바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주장 그 자체이며 ‘거짓 주장’, ‘잘못된 사실’, ‘억지로 주장’,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것이다. 제발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된 일한 양국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침착하게 비교 검토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시마네현에서는 이미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된 독자적인 교재와 자료 및 사료(史料)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서 시마네현의 모든 학교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동 및 학생들의 성장단계를 배려하면서 일한 양국의 주장과 그 근거에도 언급하면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영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관계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육성하는 데 일조가 되는 것’을이라며 “영토에 관한 교육 핸드북”을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번의 한국의 중학생들의 편지는 시마네현 중학교 교사에게 보내온 것이었지만

일본의 중학생들도 독선에 빠지지 않고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일한 양국 차세대를 젊어질 젊은이들이 교류를 심화하여 ‘상호협력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사사키 시게루 (佐々木 茂,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 연구고문)